

기획

‘통섭적 인재’ 가물가물… 설립 목적 상실한 자율전공학과

자율전공 정체성 논란

조민호 기자 luve5678@knu.ac.kr
최병현 기자 chbh102796@knu.ac.kr

2005년 이후 대학가에서는 통섭과 융합 교육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지식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의 책이 이른바 현대의 고전으로 회자되었고, 어느새 ‘다양한 학문을 두루 섭렵한 통섭인재’가 각광받게 됐다. 대학들은 ‘창의적 융합인재를 길러낸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자율전공학과(자전) 신설’에 열을 올렸다. 우리학교 또한 2008년부터 이른바 ‘통섭 열풍’에 뛰어들었고 당시 기획위원회 사무국은 특별팀을 꾸려 자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대학가에 자율전공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학교 측의 포부와 함께 서울캠퍼스(서울캠) 187명, 국제 캠퍼스(국제캠) 124명의 ‘첫’ 자전 신입생들이 입학했다.

서울캠 자전은 초기에는 수시, 정시를 합쳐 190명 가량을 선발했으나 해가 갈수록 조금씩 인원수를 줄이며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2016년에는 수시 65명, 정시는 일반 수능 중심 전형으로 41명을 선발했다. 국제 캠퍼스는 124명으로 시작해 조금씩 인원을 줄이다. 유사 학과들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2012년의 마지막 신입생들을 끝으로 2013년 3월에 폐과했다. 당시 국제캠 자율전공 학부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2012년에 교육부에서 유사학과를 정리하라는 권고가 내려왔기에 자율전공학부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서울캠 자전은, 입학생들이 특정 전공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두 개의 학기를 수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학생들은 인문학, 경영학, 기초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폭넓게 이수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탐색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전공배정을 신청해 의·약학계열(약과학과 제외), 간호계열, 예체능계열, 폐과된 전공을 제외한 전공으로 소속을 확정하게 된다. 만약 타학과로의 전공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일 전공으로 자전 내 ‘글로벌리더’와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학년 말에 다시 타 학부, 학과, 전공을 선택하거나 해당 전공에 남을 수 있다. 설립 취지대로라면 자신의 적성도 찾고, 여러 분야의 학문을 골고루 배우며 통섭적, 융합적 사고방식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두 학기 동안 소속 전공 없지만 학생들, 서둘러 전공과목 이수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학생들은 한 학기에 평균 수강신청 가능 학점으로 18학점을 부여받는다. 자전 학생들은 2개 학기 동안 총 36학점 중 1학년 필수교양인 글쓰기 1, 대학영어, 인간의 가치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시민교육(총 13학점)을 제외한 23학점을 전공으로 수강할 수 있다. 원래의 자진 설립 취지대로라면 이 학점을 여러 분야의 학문을 골고루 배우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전 학생 중에 ‘위와 같이’ 전공을 폭넓게 듣는 학생은 많지 않다. 오히려 서둘러 전공을 짐작어두고 그 학과 수업을 집중적으로 이수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2개 학기가 지난 뒤 전공배정이 이루어지면, 배정된 전공 이외의 타 전공은 교양선택 중 ‘자유이수’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3학점 이상만 수료하면 되는 자유이수 특성상, 다양한 학과의 전공을 수강할 경우 최대 20학점을 자유이수로 초과 수강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최저 학점은 130학점이다. 한 학기 평균 수강신청 가능 학점인 18학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



“

‘자율전공학’에 대한 학문적 필요성이나 깊은 이해도 없이, 단지 법과대학 폐지에 대한 ‘정원 보존’의 대안으로 각 대학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서울전공학과(학부), 혹은 자유전공학부이고,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학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

”

학기 동안 144학점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로 인해 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2개 학기 동안 자기 적성과 흥미와 재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전 재학생이 ‘전공배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개수(2016년 1학기 기준)만 33개다. 23학점으로는 각 단과대 당 한 강의도 못 듣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5학년도에 자전 학생들의 전공배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23개 전공 중, 한 명이라도 배정된 전공은 총 12개였다. 즉, 나머지 21개의 전공에는 자전 학생들이 배정되지 않았다. 4학기를 수료하고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 ‘글로벌비즈니스’ 학과와 5명 미만이 선택한 학과를 제외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6개로 압축된다. 경영학과(35명), 회계세무학과(13명), 언론정보학과(9명), 경제학과(7명), 정치외교학과(7명), 행정학과(6명)가 그것이다. 이는 자신의 흥미와 재능보다는 특정 학과에 대한 선호로 인해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학과 내 트랙들

기존 교내 과목들과 큰 차이없어

타 단과대학 이외에도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자전 내 ‘글로벌리더’와 ‘글로벌비즈니스’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국제적인 인재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당 커리큘럼에 명시하고 있지만, 커리큘럼 내 많은 과목은 경영대학에서 제공하는 과목과 거의 일치한다. 이로 인해 경영대학 홈페이지 졸업요건 기준에서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을 따로 명시할 정도다. 글로벌리더 트랙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리더 트랙에서 전공기준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매우 한정돼 있으며, 전공필수로 지정된 ‘헌법’, ‘형법총론’, ‘민법총칙’등의 과목은 과거 법과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던 과목이다.

또한, 학부가 개설된 초창기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학과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해외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를 복수로 인정해 주겠다는 제도가 있었지만 짧은 기간만 운영된 뒤 폐지돼 해당 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2012년 자전에 입학한 한 학생은 “입시 준비 당시 자전이란 학과 자체가 생소해 정보

를 모으면 중, 경희대의 비즈니스 트랙에서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복수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발견했다”며 “제도에 관심이 많았었지만 학위 제도가 정확히 어떤 체계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 또 입학 당시 선배로부터 학위 제도가 거의 폐지됐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트랙 내의 차별점과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타 과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베껴와 적용했기 때문에 자전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트랙이 ‘다양한 과목을 접하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반(反)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초심을 잊고 문제점을 방관한 채 자전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태도에 대해 학생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박하현(자율전공학 2012) 군은 “자전을 설치해놓고 설립취지나 목표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학사당국을 보면 차라리 학과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타 전공 수업을 무조건 들을 수도 없으며, 정해진 전공 기초 수업만 들어야 한다”는 그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전과했을 때 들었던 전공기초는 모두 자유이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커리큘럼 상으로 자전 학생이 받는 피해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전 행정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학생들이 유예기간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자전의 진로 탐색의 측면에 반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자율전공학과가 지향해 나갈 정체성, 커리큘럼’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전 측은 “행정상으로나 커리큘럼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행정실 측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자전의 설립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2009년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폐과된 법과대학 인원(T.O.)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율전공학과가 설립됐다는 것이다.

‘자율전공학’에 대한 학문적 필요성이나 깊은 이해도 없이, 단지 법과대학 폐지에 대한 ‘정원 보존’의 대안으로 각 대학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자율전공학과(학부), 혹은 자유전공학부이고,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학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엔 학과 소개에 ‘법과대학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같은 점은 실제 학생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자전에 다니는 한 학생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한다.

학문적 깊이 없이

‘법대 공백 메우기 용’ 지적도

“글로벌리더전공에 남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로스쿨 진학과 공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법과대학 전공수업이 축소되어 가고 있고, 한 학기에 개설되는 강좌가 한정적이어서 글로벌리더 전공의 특색과 이점이 없다. 게다가 강좌가 열린다고 해도 커리큘럼과는 동떨어진 강좌다.”

그렇다면 타 대학 자전의 경우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2학기를 수료한 후, 전공을 선택한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학생설계전공’을 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학생설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학문) 융합을 토대로 한 교과과정으로, 학생 스스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반면 자전 제도를 폐지한 대학도 있다. 바로 연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다. 자전이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한 학문의 융합과 유예기간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설됐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학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사회 수요에 맞는 통섭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출발한 자전은 특색과 정체성을 잊고, 학생들에게 타 과로 진학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만 인식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유독 대학 측은 자전 내의 정체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자전 내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 전로를 겨냥한 트랙이나, ‘전공 쏠림’ 현상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측이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초창기의 설립 아념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자전은 결국 ‘용두사미’형 분과로 남게 될 것이다.